

《조국보위의 노래》로부터 《우리는 승리했네》까지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 - 전시가요에 대하여

6 0 번째 6. 25 가 있다.

전쟁이 일어난 날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있지 않고 있다. 그날은 도발자, 폐지자에게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각성시켜주고 수호자, 승리자에게는 자자손손, 잊지 말아야 할 승리의 대가를 사무치게 절감시켜준다.

전쟁이 남긴 전리와 교훈을 후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유산은 많다. 역사 문헌자료나 기념비도 있고 박물관의 유물이나 전쟁참가자들의 회고담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유산에도 비활용 없는 가치와 생명력을 가진 역사의 증명자는 다름 아닌 전시가요이다. 기념비나 유물은

퇴색될 수도 있고 전쟁세대의 체험담도 옛 말로 멀어질 수 있지만 노래는 영원하다. 부정의의 검은 손이 일시 전실을 외곡하고 승리의 기발을 내려올 수는 있다 해도 인민의 마음속에 있는 전시가요만은 결코 없을 수 없을 힘을 려사는 증명해 주었다.

전시가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전쟁의 목소리이다. 60년 세월이 흐른 오직 6. 25 날짜에 우리 인민은 조국에 방전쟁의 가장 귀중한 유산인 전시가요명곡들을 감동깊이 들으며 생각하고 있다.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6. 25 위에 7. 27 이 있다는 역사의 전리가 어떻게 이 땅에 새겨지게 되었는가!

홀륭한 명곡에는 반드시 사연은 유례들이 있는 법이다. 명곡의 전사를 다 해 아리자면 그 노래에 따른 사연을 알아야 한다. 전시가요들과 거기에 속여있어 있는 만단사들은 전선과 후방, 병사와 인민이 따로 없었던 전인민적 국방전선인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의 전면모와 본질을 그 무엇도 대신 할 수 없는 위대한 설득력으로 려사 앞에 날달이 펼쳐져주고 있다.

작렬하는 폭탄과 같은 전투적 격렬성, 포화속의 진갈래 폭파도 같은 국성이 강한 서정,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어떤 음악형태에 담아도 명작이 될 수 있는 풍만한 형상력, 이것은 전시가요의 고유한 예술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마디로 전시가요 특유의 인민성이라고 결론 할 수 있다. 그 인민성이 저어부르고 후대들에게 긍지높이 넘겨주는 전시가요명곡이다.

장구한 세계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제국주의식 민족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나라이 1 0 0 0년의 전쟁사에 단 한번도 폐한 적 없다고 세계

『최강』을 사랑하던 미제와 외제 제국주의의 힘에 맞서 승리한 힘과 없었다. 세계 전쟁사에 전후무수로 이런 신화를 창조한 주인공들의 노래는 그 자체가 벌써 음악의 경지에 벗어난 역사의 목소리이며 정의의 승전포성이 있다.

누가는 전쟁의 도발자, 폐지자이며 누가 수호자, 승리자인가 하는 물음에 인류의 전진한 히성이 이렇게 판결한다.

그들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전시가요들이 있는가, 후손만대와 인류가 사랑하며 제 보리로 보존할만한 전시가요명곡들이 있는가?

전승국이라고 차지하는 나라에, 승리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전시가요명곡이 없다면 그들은 벌써 인민의 편, 정의의 편이 아니라. 정의는 언제나 인민의 것이며 승리자는 어느 때 어제나 인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역사의 전실이다.

지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승리이다. 이것이 선군조선의 전시가요명곡이 역사와 후손만대에 새겨주는 영원한 승리이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명의 주인이 되어 난생처음 사립함에 산 5년의 생활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쌔 웃이었다. 해방후 5년의 풍기는 행복과 일제의 노예가 되었던 치욕의 수십년을 또다시 바꾸는 고지에서 불사신마냥 싸우는 인민군병사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정한 고향, 사랑하는 부모형제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의 용맹에는 샘처럼 맑고 불처럼 드러운 사랑이 있었다.

병사들의 즐거운 고향이 야기, 고향에 보낸 소식을 부탁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작가와 작곡가로 하여금 전호가에서 수류탄상자를 엎어놓고 볼을 달리게 하였다.

전선의 용사들은 후방에 전하는 소식은 가사와 선율이 되어 한음의 폭발과 같은 명곡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빛난 황장 가슴파에 내 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에게 두팔로 끼어 안기리라는 구절이 흐르는 대목에서 문득 작곡가의 봄이 멎었다. 얼마전에 그에게는 미국

전쟁은 사람들은 군복에 허우적 허우적 차마만이 아닌 조국의 목소리로 메아리치고 있던 것이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에 후방인민들의 목소리로 화답한 가요 「우리 님 영웅되셨네」의 가사가 쓰 사람은 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있어 그 애국심을 염두에 두면서 그를 향해 향기로운 별꽃에도 얼마전에 전사한 소대의 한 병사의 짚이었다.

병사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안해에게 전쟁이 끝나면 가슴에 흰하도록 흔장을 달고 돌아올 것이라고 힘을 주고 떠난 소대장의 마음속에서는 전선의 용사들은 뜻지 않게 억세게 싸우며 일하고 있는 후방의 너인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남편들과 함께 전호에서 싸우는 짐승처럼 그들이 있기에 전선의 영웅도 있고 전선의 시련은 그 애국의 정신적 종종이 밀비닥까지 드러나는 첨에 한 시합마당이다.

국가의 생사종당, 배개인의 삶과 죽음이 일어나는 전선의 시련에 향기로운 별꽃을 달고 신념과 사랑의 정체를 조국에 대한 노래, 애국에 대한 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떠나고 있다.

소년전쟁에서 최악의 시련의 시기였던 1 9 4 1년 겨울에 헤어난 「페넌그라드 교향곡」은 세계적인 명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후의 한 사람인 남을 향해 끝까지 싸워 승리 허리는 불꽃의 애국주의 정신이 전하게 흐르는 교향곡의 강렬한 비장성과 영웅성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제가 「크리스마스」인 1 2 월 2 5 일 전으로 암록강에 이르렀다고 호언장담 할 때 암록강강습에서 어떤 노래가 태어난 것이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 0 대의 어린 시절인 주제 4 1 (1 9 5 2)년에 천히 창작하신 것이다.

가장 전쟁의 최후승리를 정취하기 위한 척련한 견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면 주제 4 1 (1 9 5 2)년 5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제가 「크리스마스」인 1 2 월 2 5 일 전으로 암록강에 이르렀다고 호언장담 할 때 암록강강습에서 어떤 노래가 태어난 것이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게 한 원화마을의 봄씨 불임 소식은 창작가들의 가슴에도 승리의 봄씨 암을 뿐이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맑은 물들이 솟는 봄은 산, 기름진 들판을 물길에 날아온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여 전시가요명곡을 부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민을 끌없는 강격파 흥분에 휩싸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옹진군당위원회에서는 미체와 남조선피리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국도에 이르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꾀로써 생활한 우리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한 일군은 군계교양판을 찾았을 때였다. 마침 강사가 참관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사는 물론 참관자의 대부분이 미체와 계급교양원들의 만행을 체험해보지 못한 20대, 30대의 새 세대들이었다. 그날 참관자의 한 사람으로 강의를 듣고난 그 일군은 계급교양의 실현성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의 실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새롭게 하여야 할

계급적 자각을 높여주는 데 큰 힘을

옹진군당위원회 일군들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일군은 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체와 계급적 원수들이 용전당에서 강행한 만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목격자, 체험자들을 내세워 계급교양을 실감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강사들의 역할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들리었다.

계급교양의 실현은 강사들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군계교양판에서는 강사들의 강의 합평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평가는 그려 시원하지 못했다. 대중과의 흥분제가 더욱 원만히 높아지게 되었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모든 목격자, 체험자들에게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더해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 강사들의 수준이 한계 단계로 높아지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강사들은 역사적 사실을 사

람들에 알려주는 단순한

진달자가 아니라 무참히 학살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냄새를 대변하여 미체와 계급적 원수들의 죄행을 날날이 밟아내고 대중을 긍정으로 각성시키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군당위원회는 선전선동부에서는 이 사업에 품을 넣었다. 목격자들을 만나보면 한 번도 강사들이 새 세대들인 조건에서 그때의 사실에 대한 생활한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체와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이 강행된 장소에서 조직한 강의 합평은 강사들에게 강의 내용에 따르는 강정표현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하는 화술방법을 터득하게 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 강사들의 수준이 한계 단계로 높아지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체험자들을 강의에 출연시켜 계급교양의 실현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사업이 새 세대들에게 준 영향은 대단히 커졌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선 강사들의 수준 문제를 결정적으로 둘러가기 위한 데 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다.

고지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각지 고지 생산 사업소들

각지 목화생산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목화모蛾 겹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끌낸 기세로 드높이 김매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지리적 유리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면 영농생산능률을 높이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농업성에서는 목화밭면적을 훨씬 늘려난 실정에 목화생산을 높이기 위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따른 계급교양사업에 더욱 큰 힘을 넣고 있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가 김제에 청진현장에서 계급교양판광장사들로 이동강의를 조성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를 전개하는 일이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사업에 수호할 원쑤격의 의지를 새겨주었다. 이것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전제 없는 혁신을 창조하게 하였다.

세월은 훌륭한 계급교양사업을 보여주었다. 퍼로 미체와 남조선피리호전세력은 계급교양사업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목화밭면적을 훨씬 늘려난 실정으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미체와 남조선피리호전세력들이 『천안』 호침몰사건을 날조하고 북침전쟁소동을 팽팽하게 벌리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였다.

이동강판판을 준비해 가지고 옵합전쟁동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사업을 실시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각지 목화생산 단위

목화전협동농장들에서도 앞선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격전을 벌리고 있다. 이 농장들에서는 후지질을 앞두면서 일정계획대로 김매기로 모은 토전을 알뜰히 가꾸고 있다. 올해 목화생산 목표를 높이 한 강동군봉화현동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지 목화전협동농장들은 불씨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이 세운 김매기 일정계획

조선중앙통신사보도

천만대결산할조약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끼친 피해액 64조 9598억 5400만US\$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주 미제침략자들이 평화롭고 행복넘치며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일으킨 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렀다.

악의 원흉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참화는 세계전쟁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가장 악마적이며 만인 불적인 특대형전범죄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천인공노할 살육과 파괴, 탈락행위를 감행하였을뿐 아니라 남조선을 강점한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새 조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고 유엔현장과 공인된 국제법적 규범들을 완곡하게 유린하면서 전대미문의 제도적 고립 압살정책을 악랄하고 집요하게 추구해 올으로써 우리 나라에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미국이 공화국 북반부에 끼친 피해조사위원회»는 미제가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침여든 1945년 9월 8일부터 60년간 공화국 북반부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를 전면적으로 조사방법을 통해 압수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방법을 총괄한데 의하면 총 64조 9598억 5400만US\$에 달한다.

피해액의 산출은 해당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공개적으로 표출된다. 기초한 것으로 조사방법으로 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조사방법을 확정된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체온, 혁명사적과 같은 만년재 보들과 혁사유적, 유물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들의 파괴, 새 전쟁 도발책동과 학선제공위협에 의한 우리 인민의 정신적 압박감, 악랄한 부트조아사문화침투작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는 다 계산할수 없는 경지도 적, 문화적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이루 해아릴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반세기 이상 분열의 비극속에 당하고 있는 정신적 불행과 고통 그리고 북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가 통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 써도 보상할수 없는 것이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뿐지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에게 계속 재난만을 강요해왔습니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모든 피해행이야말로 그 규모와 지속성, 악랄성과 파렴치성이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주는 온갖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천추만대 끝까지 결산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사방법을 확정된 공화국 북반부의 피해자들을 발표한다.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대학살죄

퍼뜨렸다.

이 암명높은 세균전, 화학전에 의해 독가스란에 죽은 남포시의 17 9명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5만여명의 인민들이 학살되었다.

미제는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협약은 암종에도 없이 우리측 전쟁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다 못해 미국 죽이고 극악한 인체실험대상으로까지 삼는 범죄행위를 서슴히 강제로 치적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저지른 치명리는 민간인 학살은 전시 사민보호에 관한 국제법들과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완곡하게 위반하며 민간인들에게 강행한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가장 야단적인 행위였다.

3년간의 전쟁기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1 2 3만 1 5 4 0여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다.

일시적 강점시기 신천당에서 군인 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고한 민인들이 학살된 것을 비롯하여 전쟁 전기 간 황해도에서 4 0만 1 9 4 0여명, 평안남도에서 1 6만 2 1 8 0여명, 강원도에서 1 2만 9 3 9 0여명, 평안북도에서 1 1만 6 2 2 0여명, 함경남도에서 1 1만 5 3 0 0여명, 함경북도에서 8 2 8 0 2 0여명, 자강도에서 6만 4 2 4 0여명의 민인들이 미제 살인귀들에게 의하여 폐허리며 쓰러졌다.

미제 야수들은 평양에서만도 1 5만 7 8 4 0여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였다.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용납못할 범죄의 하나는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세균전을 전면적으로 벌리고 대량살육수단인 화학무기 대에 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미제가 1 9 5 2년 1 월 말부터 3월까지 두달기간에만도 4 00여개소의 북반부 각 지역에 7 00회 이상이나 피부은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빈대, 모기 등 유해곤충들이 무수히 들어있었고 그것들은 페스트, 폴리라, 천연두, 풍疹성 전염병균들을 폭발적으로

전쟁전 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

제1차 별적인 피해와 강탈행위

미제에 의해 파괴량당한 재산피해

액은 2 0 2 억 8 1 0 0만US\$에

달한다.

평화적 도시와 촌락, 살림집, 건

물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규정한 전쟁

법 규를 백지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조선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

과 죄악을 세계로 폭로하는 혁사의 죽도로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 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애파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기간 공

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에 대규모의

폭격과 포격을 가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된 나팔판, 생화학탄까지

사용하여 온 강도를 그야말로 초토

화하였다.

미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 들

리는 공화국 북반부지역에 흐름, 암

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3 0 2 9의 공장, 기업소, 살림집 등 평화적 시설물과 건물들,

3 0 3 7정보의 부침당과 1 6

3 0정보의 산림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국가공공재산은 물론 1 0 6 9마리의 소, 벼구리를 포함한 수천마리의 집집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가장집을 깨끗하게 탈락해갔다.

전쟁전 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

연구기판건물 5 7 9 0동, 출판 및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기린

제1차 별적인 피해와 강탈행위

액은 1 0 3 1 억 6 9 0 0만US\$에

달았다.

미제에 의해 파괴량당한 재산피해

액은 2 0 2 억 8 1 0 0만US\$에

달한다.

평화적 도시와 촌락, 살림집, 건

물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규정한 전쟁

법 규를 백지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조선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

과 죄악을 세계로 폭로하는 혁사의 죽도로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 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애파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기간 공

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에 대규모의

폭격과 포격을 가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된 나팔판, 생화학탄까지

사용하여 온 강도를 그야말로 초토

화하였다.

미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 들

리는 공화국 북반부지역에 흐름, 암

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3 0 2 9의 공장, 기업소, 살림집 등 평화적 시설물과 건물들,

3 0 3 7정보의 부침당과 1 6

3 0정보의 산림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국가공공재산은 물론 1 0 6 9마리의 소, 벼구리를 포함한 수천마리의 집집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가장집을 깨끗하게 탈락해갔다.

전쟁전 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

연구기판건물 5 7 9 0동, 출판 및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기린

제1차 별적인 피해와 강탈행위

액은 1 0 3 1 억 6 9 0 0만US\$에

달았다.

미제에 의해 파괴량당한 재산피해

액은 2 0 2 억 8 1 0 0만US\$에

달한다.

평화적 도시와 촌락, 살림집, 건

물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규정한 전쟁

법 규를 백지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조선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

과 죄악을 세계로 폭로하는 혁사의 죽도로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 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애파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기간 공

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에 대규모의

폭격과 포격을 가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된 나팔판, 생화학탄까지

사용하여 온 강도를 그야말로 초토

화하였다.

미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 들

리는 공화국 북반부지역에 흐름, 암

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3 0 2 9의 공장, 기업소, 살림집 등 평화적 시설물과 건물들,

3 0 3 7정보의 부침당과 1 6

3 0정보의 산림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국가공공재산은 물론 1 0 6 9마리의 소, 벼구리를 포함한 수천마리의 집집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가장집을 깨끗하게 탈락해갔다.

전쟁전 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

연구기판건물 5 7 9 0동, 출판 및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기린

제1차 별적인 피해와 강탈행위

액은 1 0 3 1 억 6 9 0 0만US\$에

달았다.

미제에 의해 파괴량당한 재산피해

액은 2 0 2 억 8 1 0 0만US\$에

달한다.

평화적 도시와 촌락, 살림집, 건

물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규정한 전쟁

법 규를 백지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조선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

과 죄악을 세계로 폭로하는 혁사의 죽도로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 8개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날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제는 남조선피리들을 사축하여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평화로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주중국가들을 짚어모아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하기에 암살하고 세계제국당을 실현하기 위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고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대 학살 전쟁이었다.

지금은 침략자들의 폭격과 포격에 무너지고 불타면 거리와 마을을의 참담한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오고 인간의 탈을 쓴 애수들에 의해 퍼져며 쓰러진 우리 부모 형제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귀전에 들려오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동포형제들이 그처럼 무참히 그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았던가.

『닥치는대로 죽이라』, 『북조선을 세데미로 만들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 이것이 미제가 침략군대에 내린 전시령이었다.

살육과 파괴에 환장이 된 침략자들은 남녀로소,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죽여죽이고 불태워죽이고 생태장해죽이었으며 목에 달아죽이었다.

신천령의 원한에 찬 참상을 보려고 무고한 인민들을 소달구지에 비고 떠나여 사지를 죽여죽이고 미리에 대못을 박고 가죽을 벗겨 학살하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고집되어 둘로 나눠죽인 중세기적 살육만행, 너성들과 아이들을 방공호에 가두어놓고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고 헤워유를 뿐이며 위워죽인 그물서리치는 야수적 만행을 세월이 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공동성토문

더 이상 지켜볼 것도 기대 할 것도 없다.

지난 2년 수개월동안 역적폐당에게 속아 민생과 민주, 6·15의 기쁨이 것 말하고 혁전쟁의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미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피뢰보수폐당을 반대 격파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자주와 민족의 참다운 세상을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이기 전에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단호하고 두자비한 투쟁으로 피뢰보수폐당이 저지른 반민족적죄악을 총결산하고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혁사의 무덤에 영영 매장해버려야 한다.

6·15는 평화의 길, 통일과 번영의 길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누구나 다 6·15를 지키고

리행하는 길에 펼쳐나서야 한다.

온 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굳게 단합하여 6·15의 열

풍으로 미국과 리명박당이 몰아

오는 제 2의 6·25평통을 떠나

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

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거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반드시 반미반탁통

을 불러울음으로써 거래가 당한 회생

과 재난의 대가를 친백배로 떠나내

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의 『우방』도

『보호자』도 아닌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쟁

『동맹』이 있고 망국 『동맹』인 미국

의 치욕적인 『동맹판례』를 단

단지 높아져버리고 미국의 군사적 강

점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미국에 벼락질 미족의 리익을 팔

이며 거래의 어리유에 혁전쟁참화를

돌이켜우려는 역적폐당을 그대로

두렵게 남조선인민들이 무사할 수 없고

민족이 세장을 면할 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당에 대

평양 24일 평양

미국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장본인

페루와 별거 아버지가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암살작전에 미처 날뛰는 미국과 리명박당에 준렬히 규탄하였다.

김정일장군과 루친목회는 5월 29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은 미국과 남조선피리들의 날뛰고 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책임으로 『조사결과』라는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조동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은 충돌없이 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장난에서 사고가 그칠 때마다 일어난다.

『천안』호침몰사건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과정에 일어났다.

중국의 교부 대변인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의 핵심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룬들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국악한 살인마들에 의해 학살당한 처참한 시체들이 이 나라의 산과들, 거리와 마을에 널리고 강들에는 물이 아니라 우리 동포형제들의 피가 흘러넘쳤다.

미제 살인귀들은 지난 전쟁 시기 국제법을 탄복하게 위반하고 우리 민족에게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였으며 지어 원자탄을 펴부를 흥미까지 꾸미었다.

미제와 남조선피리들의 치열리는 아주 적만행에 의해 전쟁기간 수백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당하였으며 반공화국부분는 점 한제, 벽들 한장 성한 것 없는 페로 허를 허하였다.

미국은 남조선피리들의 치열되는 전쟁의 불길이 흐를 때마다 이에 맞서는 전쟁으로 빌려놓았다.

미국은 남조선에 천미보수집단인 리명박당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당은 『정권』의 문제를 달기 바쁘게 『한미관계 우선론』과 반공화국대결 결정책인 『비핵화, 개방, 3 000』을 내들고 6·15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켰으며 상전의 배후조종밀이 특대형 반공화국모국당인 합선침몰사건까지 조작하고 정세를 당장 전쟁의 불길이 터질수 있는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동족을 거냥한 미국의 침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극력 비호두둔하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책역제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니 뛰어하고 악착하게 걸고들고 있는 것도 피뢰파당이 선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구실밑에 남조선을 무사적으로 더 깊숙이 가로타고 앉아 지배와 예속의 늪가미를 조이고 있으며 반공화국적 대시정책을 짐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리명박당을 부추겨 북남관계를 수습할 때 데려들려면 수도는 험준한 국면에 뛰어들려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천미보수집단인 리명박당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어제나오늘은 알라진것이 없으며 살피면 무리도 다름아닌 피뢰보수 폐거들이이다.

제 나라, 제 민족도 모르고 거래의 운명이 어떤가 되든 안중에

지 않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왔다.

미국은 조선전쟁 협정에 서명한 임크를 마르기지도 전에 남조선에 해인기를 고집하고 빌려놓았으며 『EC-1 2 1』 대역간첩행기 사건, 『판문점사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반공화국소동 등에 물이 아니라 우리 동포형제들이 만들었으며 남대를 이어오며 『루에 블로』 호 사건, 『한미관계 우선론』과 반공화국대결 결정책인 『비핵화, 개방, 3 000』을 내들고 6·15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켰으며 상전의 배후조종밀이 특대형 반공화국모국당인 합선침몰사건까지 조작하고 정세를 당장 전쟁의 불길이 터질수 있는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천미보수집단인 리명박당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당은 『정권』의 문제를 달기 바쁘게 『한미관계 우선론』과 반공화국대결 결정책인 『비핵화, 개방, 3 000』을 내들고 6·15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켰으며 상전의 배후조종밀이 특대형 반공화국모국당인 합선침몰사건까지 조작하고 정세를 당장 전쟁의 불길이 터질수 있는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동족을 거냥한 미국의 침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극력 비호두둔하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책역제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니 뛰어하고 악착하게 걸고들고 있는 것도 피뢰파당이 선

에 빠진 리명박당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당은 『정권』의 문제를 달기 바쁘게 『한미관계 우선론』과 반공화국대결 결정책인 『비핵화, 개방, 3 000』을 내들고 6·15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켰으며 상전의 배후조종밀이 특대형 반공화국모국당인 합선침몰사건까지 조작하고 정세를 당장 전쟁의 불길이 터질수 있는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동족을 거냥한 미국의 침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극력 비호두둔하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책역제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니 뛰어하고 악착하게 걸고들고 있는 것도 피뢰파당이 선

없이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지르려고 말枉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전쟁평신자들과 한

호나가는 가를 지켜보고 있다.

민족의 피와 냉이 있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분연히 펼쳐일어 기전에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단호하고 두자비한 투쟁으로 피뢰보수폐당이 저지른 반민족적죄악을 총결산하고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혁사의 무덤에 영영 매장해버려야 한다.